

모데미풀



글 : 김재황(詩人)

사 진 : 김정명(寫眞作家)

學 名 : *Jeffersonia dubia* BENTH

한국특산 식물로, 독이 있어서 함부로 먹을 수가 없다. 중부 이남의 깊은 산 속 능선 부근에 산다. 키는 30cm 내외. 뿌리에서 모여 나는 잎은, 잎자루가 길고 잎 끝이 3개로 갈라진다. 갈라진 그 하나하나의 조각이 다시 두세 개로 갈라진 후에 가장자리가 패이는 듯 톱니를 보이거나 또다시 두세 개로 갈라짐을 보인다.

4월경, 잎이 없는 줄기 중앙부에서 한 대의 꽃대가 나와서 한 송이의 흰 꽃을 피운다. 5개의 꽃받침과 꽃잎을 지니고 씨방과 수술이 많다. 6월이면 열매가 익어서 벌어지고, 열매 끝에 암술대가 붙는다. 일명 '금매화아재비'. 여러 해살이 풀이다.

모데미풀 꽃의 특징은 일찍 피었다가 쉽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꽃이 희고 아름답기에 더욱 큰 아쉬움이 남는다. 마치 죽통(竹筒)속의 미녀를 훑쳐 본 것 처럼.

김유신(金庾信)에 관한 설화가 있다.

어느날, 유신이 서주에서 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길에서 한 수상한 나그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 머리 위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유신은 신비로움에 이끌려서 그 나그네 뒤를 따라갔다. 한참을 가서, 그 사람이 한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 쉬자, 유신도 그 옆에서 쉬면서, 짐짓 자는 체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그네는 주위를 살피고는 품 안에서 죽통 하나를 꺼내어 좌우로 흔들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백옥 같은 살결의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는데 아닌가. 나그네는 그 여인과 마주 앉아서 담소를 했다. 그러다가 멀리서 인기척이 나니까, 그 여인은 도로 죽통 속으로 들어가고, 나그네는 죽통을 품안에 간직하더니 일어나서 길을 가기 시작했다.

유신은 나그네를 쫓아가서 통성명을 하였다. 서울에 이르렀을 때, 유신은 나그네를 남산 소나무 아래로 인도하여 주연을 베풀었다. 나그네는 행동과 말씨가 온화했다. 나그네는 죽통속의 미녀를 불러내어, 유신에게 소개했다.

“제 아내입니다. 동해에서 장가들어 지금 서해에 있는 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일더니, 두 사람 모두 사라져 버렸다. 조선조 선조 때 사람인 권문해(權文海)가 지은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에 수록되어 있다.